



진주시 학생들의

진주시교육청

李 貴 玉 씨

저의 소망은
" " " " "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진주. 전통교육의 맥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어 교육의 도시로 더욱더 유명한 진주이기도 한다.

그런 진주시의 학생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년간을 묵묵히 일해온 李貴玉씨(30세 진주시 교육청 학무과 사회체육계 지방보건기사보).

지난 79년 보건직공채로 입사하여 충무교육청, 80년 마산시교육청, 84년도교육위원 등을 두루 거쳐 86년에 현직인 진주시에 발령받아 학생기생총관리, 급식관리, 건강관리, 환경미화등의 업무를 완전하게 시행해서 교육청안에서는 여걸(女傑)로 소문났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천직(天職)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제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여자의 수줍음을 갖추면서도 다부지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李貴玉씨.

86년에 결혼한후로는 아들 유 성훈과 함께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덧붙혀 말하는 그녀다.
『저의 소망은 가난한 학생들의 아픔을 치유해주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다 시말해 이곳 진주에는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병원 및 약국에도 못가본 학생들이 산재해요. 그런 학생들을 누군가가 돌보아주길 바래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여 뚜렷한 행동을 할수 없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그녀는 말한다.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항상 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해 학생들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겸손해 하기도—

『지난 80년 충무시 통영군의 학생기생총 검사에서 70% 이상이 감염자로 나타났었지요.

그런 상태를 한국기생충 박멸협회(現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몇달간을 계몽 활동 및 검사로 15%이내로 떨어뜨렸지요.』 그때의 일이 가장 감명 깊게

